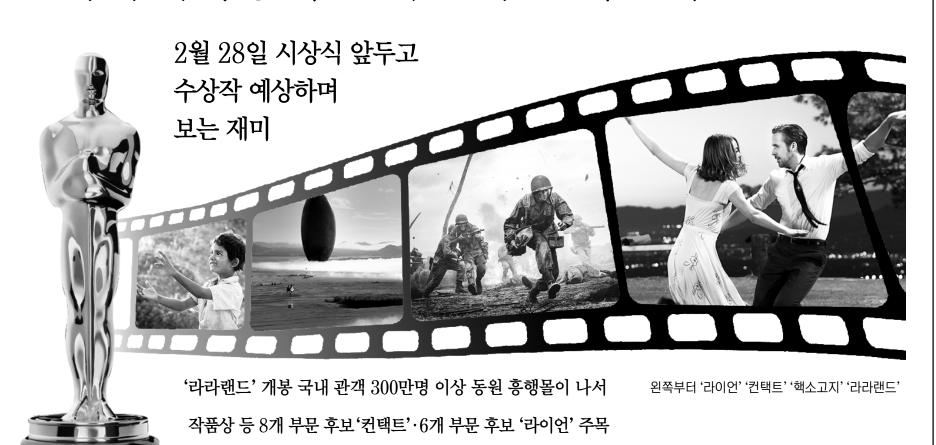
아카데미상 후보작들이 몰려온다



'라라랜드', '컨택트', '문라이트', '핵소 고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누가 점령 할까.

매년 전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제88 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2월28일)을 앞두 고 주요 부문 후보작들이 설 연휴 이후 잇 따라 개봉한다. 13개 부문(주제가상 후보 2곡) 후보에 오른 '라라랜드'가 이미 개봉 해 국내 300만명 이상을 동원하며 흥행몰 이를 하는 가운데 올해는 어떤 영화와 배 우가 오스카상을 받을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첫 포문은 2월1일 '라이언'이 연다. 작품 상·남여 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 다. 다섯 살 때 길을 잃고 호주로 입양된 사 루가 구글어스로 25년 만에 집을 찾아가 는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으로 가스 데이비스 감독의 데뷔작이다. '슬럼독 밀 리어네어'로 화제를 모은 배우 데브 파텔 이 성인 사루를, 니콜 키드먼이 호주의 양 어머니로 출연한다.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노예 12년' 에게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여하며 '백인들의 잔치'라는 편견을 깬 만큼 데브 파텔이 남우조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

다음날(2월2일)에는 작품상, 감독상 등 8개 부문 후보에 오른 '컨택트'가 찾아온 다. '시카리오 : 암살자의 도시'(2015), '프 리즈너스'(2013)를 연출한 드니 빌뇌브 감 독의 첫 SF영화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찾아온 12개의 거대한 물체가 보내는 의문 의 신호를 언어학자 루이스(에이미 애덤 스)와 물리학자 이안(제러미 레너)이 해석 하는 과정을 그렸다. 외계인이 등장해 전 쟁을 벌이는 기존 SF영화들과 달리 생경 한 언어를 지닌 생명체 혹은 문명이 서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소통하고 교감하는 지에 초점을 맞춘다.

2월15일에는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맨체스터 바이 더 씨'가 개봉 한다. 할리우드 톱스타 맷 데이먼이 제작

자로 나섰고 벤 애플렉의 친동생 케이시 애플렉이 주인공 리 역을 맡아 눈길을 끈 다. 갑작스러운 형의 죽음으로 고향에 돌 아온 리가 조카 패트릭을 위해 맨체스터에 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숨겨둔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게 되는 내용이다. 당초 맷 데이먼이 제작뿐만 아니라 연출, 주연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스케줄 문제로 제작에 만 참여했다.

2월22일에는 '문라이트'·'핵소고지'가 동시에 상영한다.

'문라이트'는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한 흑인 아이가 소년,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겪는 사랑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다. '노 예 12년', '빅쇼트' 등을 만든 플랜B가 제 작했으며 플랜B 공동 대표인 브래드 피트 가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감독은 '멜 랑콜리아의 묘약'(2008)에 이어 두 번째로 메가폰을 잡은 배리 젱킨스로, 작품상·감 독상 등 8개 부문 후보에 선정됐다.

같은날 개봉해 경쟁을 벌이는 '핵소고

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오키나와 전투에 서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부상자 75명을 구한 데스몬드 도스의 실화를 다뤘다. 배 우 멜 깁슨이 '아포칼립토'(2007) 이후 10 년 만에 감독을 맡은 작품으로, 작품상·감 독상·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 후보다.

그밖에 촬영상 후보에 오른 마틴 스코세 이지 감독의 '사일런스'는 2월28일 관객들 을 만난다. 천주교 박해가 한창이던 17세 기 일본에서 실종된 스승을 찾아 나선 2명 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일 본의 동명 원작을 스크린에 옮겼다.

또한 3월에는 작품상, 여우조연상, 각색 상 3개 부문 후보에 오른 '히든피겨스'가 개봉한다. 1960년대 미국과 러시아의 우 주 개발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이끌었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 프로젝트의 숨 겨진 천재 흑인 여성 3명의 실화를 소재로 했다. 현재 북미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 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형문화재 이매방의 '승무' 배우기

춤보존회, 2월 4일 연수회

우봉 이매방 춤보존회가 '제18회 승 무 연수회'를 2월4일 오전 10시부터 1 박2일 동안 목포문화예술회관 1층 전 수관에서 연다.

이번 연수회는 전국 중견 무용예술 인, 무용 지도자, 전공자, 학생 등이 대 상이다. 고(故) 우봉 이매방(사진) 선 생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보존과 전승, 전통무용 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자 · 김묘선 전수 교육 조교와 최창덕·이현주 이수자가 강사로 나서 우봉 선생의 북가락, 세찬 장삼놀음



등 '승무'의 기 본기를 가르칠 예정이다.

신청은 홈페 이 지 (www. leemaebang. com)에서 참 가신청서를 받

아 작성 후 이메일(faust127@daum. net) 또는 팩스(02-2252-7001)로 보 내면 된다. 참가자는 장삼, 연습복, 버 선, 북채 등을 준비해야 한다. 참가비 20만원. 문의 02-2298-7001, 011-9773-28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술품 거래정보 한눈에…'미술시장 정보시스템' 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국 내 미술품 거래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 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 k-artmarket.kr)'을 개편했다.

문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 스템'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방문자 8만2000명(월평균 6680명)을 넘어선 국내 대표 미술시장 정보 웹사이트다.

중요 개편 사항은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경매회사를 통해 거래 된 8만여건의 미술작품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하는 통계와 검색 서비스 제공 이다.

이용자는 원하는 데이터를 기반으

로 통계표와 차트를 생성해 업무와 연 구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태그 검 색을 통하 작품의 장르와 색상, 크기, 가격 등 다양한 필터가 적용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추후 '화랑·아트페어 코너(메뉴)'를 신설해 경매 외에 국내 화랑과 아트페 어의 전시, 작가, 거래 작품의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화랑·아트페 어 관계자들은 기관 아이디를 부여받 아 '화랑, 아트페어 코너'에 해당 정보 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오는 2월과 3 월에는 모바일 페이지와 영문 사이트 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18년간 560배 커졌다

거래금액 3억원→1680억원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이 18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

30일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거래금액은 지난해 1680억원을 기록, 국내 미술품 경매시스템이 첫 도입된 1998년의 거래금액(3억원)보다 560배 나 커졌다. 작품 수는 1998년 87점에 했다.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은 18년 동안 금액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42. 1%를 기록했으며, 작품 수로는 연평 균 32.0%씩 성장해 왔다.

이 통계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 템에서 지난 25일부터 제공하기 시작 한 1998~2016년 거래된 8만여 건의 국내 미술품 경매 데이터를 토대로 했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우리나라 경매회사 1 호인 서울옥션이 설립되면서 처음 개 설됐으며, 이후 경제 회복과 맞물려 급성장해왔다.

2005년 K옥션이 설립되면서 미술 품 경매시장에는 서울옥션과 K옥션 양대 체제가 구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7년 판 매액이 1856억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2015년 서울옥션과 K옥션의 홍콩 경매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미술 시장 은 회복세다. 2015년 판매액이 전년도 의 2배인 1888억원으로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매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서울옥션이 49.1%, K옥션이 34.2%를 기록했다. 현재 모두 11개인 국내 경 매회사들 가운데 두 회사 점유율이 83.3%에 달한다.

유물에 담긴 나주의 멋과 흥, 아름다움…

김태주 '나주, 옛사람들의 멋'

나주는 영산강과 넓은 평야를 거느린 전 라도의 대표 고장이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남도 특유의 고유한 문화를 꽃 피운 지역이기도 하다.

나주 옛사람들의 멋과 흥, 아름다움을 거주지와 유물을 매개로 조명하는 책이 출 간돼 눈길을 끈다.

오랫동안 그래픽 디자인을 해왔으며 옛 사람들의 멋을 채록하는 일을 해오고 있 는 김태주 씨가 발간한 '나주, 옛사람들의 멋'(인간희극)은 나주 사람들이 남긴 유물 의 조형미와 장식을 조명한다.

책은 지난 2015년 (사)시민문화회의가 문체부와 나주시의 지원으로 시민 대상 문 화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업의 결과물이 다. 2년여 동안 저자는 답사를 통해 유물



과 주민들의 생활 고 디지털화하는 있다. 작업을 했다.

책에는 나주의 문과 창, 등, 탑, 기 와, 주춧돌, 난간, 굴뚝, 공예품 등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유물 이 망라돼 있다. 방치되거나 점점 사라져 가는 이들 문화 자원은 나주 옛사람들의 정서를 환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여

기에는 옛사람들의 미감과 정서 그리고

저자는 "한 지역 고유의 전통 장식과 조 형물의 문양 등은 그 지역만의 지형적, 역 사적, 신앙적 환경에 적응하며 오랜 세월 살아온 주민들의 미의식이 집약돼 반영된 것"이라며 "그것은 실용적 이유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소망하는 가치에 대한 상징 이면서 그들이 누린 아름다움의 표현"이 라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m²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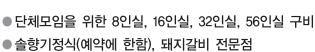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